

로卒하였고 官職으로는 昌平, 林川, 仁川, 富平等 各邑를 歷任하고 正三品에 이르렀다. 그리고 英祖繼妃 貞純王后 金氏의 父親인 金漢者와 同一家門으로 俗稱「한다리 金氏」로 불려내려오는 地方巨族의 한사람이었다. 在銘白磁壺는 金漢昌의 官職에 오른 後의 肅宗末부터 그의 卒年인 英祖三十三年까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니 곧 十八世紀 前半期의 李朝白磁의 標本의 하나로서 좋은 資料인 것이다. 釉調와 胎土의 精選된品으로 보아 廣州 分院 官窯產으로 推定되는데 銘文에 依하여 推測되는바는 特約注文品인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또 金漢昌은 仁川都護府使와 富平都護府使로 있었으니 或 그때 廣州分院에 所託하여 製品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在銘圓筒形白磁壺의 所藏者인 金昌鎬氏의 伯兄 金京鎬氏도 同一한 또하나의 圓筒形白磁壺를 所藏하고 있으니 이것도 같이 製品된 것으로 當時 여러개를 마련한 모양이다.

圓筒白磁壺가 어디 使用하던 그릇인지 그 用途가 궁금하다. 形態·銘文·窯法等으로 보아 故全釜弼氏의 所藏品으로 되어 있는 一名「드린항」이라는 圓筒白磁壺와 酷似한데 注目되며 더욱이 金昌鎬氏 藏品도 그 用途를 물어 보았더니 亦是「다래항아리」라고 함에 興味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全釜弼氏藏品은 山中木實「다래」를 담은 容器로 「考古美術」(註)誌에 紹介되었는데 金昌鎬氏藏品은 山中木實「다래」를 담은 容器가 아니라 옛날에 婦女들이 머리를 씻을 때 드리기로爲한 甕머리꼭지「다래」를 담은 容器를 뜻하고 있다. 여기 그 用途는 무엇인지 斷定을 내리기 어려우나 그 素朴한 雅趣와 純潔한 美를 자아내는 尼具의 하나로 믿어진다.

(註) 第一卷第三號「드린항」參照(全釜弼氏)

古藍의 翎毛佳作

崔 淳 雨

古藍 田琦의 作品은 그 遺例가 많다고는 할 수 없고 있다해도 그의

會心の 快作을 보기란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이번 우연히 R氏가 所藏하는 傳古藍 筆翎毛佳品 한폭을 볼機會가 생겨서 뜻밖에 그의 佳作에 眼福을 누리게 된 것이다.

唐紙에 水墨으로 豪放하게 그려내뜨린 小品이었지만 그 筆勢의 闊達함이라던지 構圖의 圓熟함과 水墨의 自由로운 驅使가 筆法이 매우 雅妙해서 無一點俗氣한품이 可히 古藍이라고 할만해서 愉悅을 不禁한 것이다.

山비둘기랄까 까치랄까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落葉된 枯木 가지 앞에 한쪽 날개를 펴서시떨치고 한참이 사냥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버티고 선 두발의 안정된 姿勢라던지 나래에 꼬아박은 새머리의 動作이라던지 簡朴한 筆致이지만 迫眞하는 表現을 보였고 먹으로 메꾸어 남긴 紙本의 흰素地로 表現한 주둥이의 솜씨도 매우 格調가 높다고 할만하다. 더구나 濃淡으로 段層지어서 두발 밑에 나래로 칠한 淡墨調는 非凡한 作家의 멋진 造形이라 하겠고 渴筆로 之字形으로 一筆揮之한 枯木가지의 筆勢와 두어번 渴筆 換쳐버린 새꼬리의 表現도 可히 즐길만하다. 이러



한級の 幽情이 넘치는 그림을 남길만한 作家는 그리 흔한 것이 아니며 古藍의 作品中에서도 佳作中の 佳作이라고 할만하다. 德壽宮美術館이 所藏하고 있는 古藍의 水墨小品들, 例를 들면 「灑北葯庫」 「溪山苞茂」 「二兄寫山相」 等の 筆致는 이 翎毛圖와 相通하는 素描風의 作品이며 비록 이 作品에 欸識은 남기지 않았드래도 「古藍詩畫非直當世寡儔, 可以 上下百年論也」라고 歎息한 壺山居士의 말대로 果然 古藍이 아니고는 그 누가 이 멋진 그림을 남겨 놓을 수 있었을 것인가, 가로 四〇cm 세로 二七·三cm의 小幅·그림의 왼쪽으로 三分之一의 部分에서 素紙를 이었 고 그림은 이은 종이에 그린 것이며 紙質은 「灑北葯庫」와 同質로 보여 진다.

在日高麗梵鐘的一例

黃 壽 永

在日鐘에 對하여서는 寺院 또는 個人所藏을 막론하고 日人學者에 의 하여 調査發表된 바 있다. 그러나 日帝期에 搬出되어 個人에 秘藏된 小藏에 있어서는 아직도 新例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紹介하는



一口는 筆者가 一九六二年 春에 東京에서 過眼한 것이므로 出土地나 傳來經緯는 밝힐 수가 없다. (註) 全高二五cm의 小鐘으로서 龍紐는 缺失되었으나 甬筒(高五cm)은 남아 있다.

鐘身에는 九乳(蓮花座)의 四乳廓(雷紋帶)이 있고 上下帶에는 唐草文(珠文帶)이 彫刻되었으며 飛翔形의 合掌天人과 圓形蓮花紋撞座가 鐘腹에 交代되어 있다. 銘文으로서는 乳廓下에 縱書二行으로 「施主降魔」 「住老大雄」라고 陰刻(字大一·五cm)되어 있을 뿐 年代가 아니보이나 上帶頂端에 立狀蓮花紋이 돌려 있고 乳廓이 上帶에서 分離된 手法 등에서 미루어 高麗下代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다. 出土品으로서 全面에 青鏽가 덮혀 있으며 龍紐이 되는 損傷이 없는 佳作이었다. 上徑一〇·五cm 下徑一四·五cm 厚一·七cm

(註) 이 小鐘은 日帝時檢事長으로 있던 日本人岡本正明이 入手 搬出한 것이라고 하는데 李朝佛畫一幅(麻布彩色)의 藥師立像으로 幅七五×長一三五cm이며 「信士康亦俊 信士康孜俊」의 人名이 있다. 과 더불어 그의 未亡人이 保管하던 最後의 二點이라고 한다. 呼價는 鐘만 十萬圓. (一九六二·三·八調查)

大邱市山格洞 先史遺蹟

尹 容 鎮

一九六二年 六月 十四日 부터 數次에 걸쳐 慶北大學校 西北卒 一km 地點에 位置하는 燕巖山 東南傾斜地 一帶에서 金石併用期及 그 以前에 屬하는 石器類及 土器類가 砂汰로 말미암아 露出되어 있는 것을 採集하였다.

燕巖山은 琴湖江과 大邱市를 通過해서 흐르는 新川과 合流하는 東便端에 位置하고 있으며 對岸의 北便端은 過去 黑耀石 等の 石器와 土器의 出土로 紹介된 砂山丘陵이 있고 南쪽은 大邱가 있는 盆地이다.

이곳에서 採取되었던 遺物種類를 보면 有溝鑿形石斧가 石器類가운데 가장 많아 完成品 未完成品은 各種이 있다. 또 少量이나마 石鏃과 半月形石刀片 及 蛤刃石斧, 石製劍把頭飾, 各種祇石, 小形單刃石斧, 紡錘車片 등이 있고 土製品類에서는 一般으로 變化가 적고 口緣部에 帶가 있